

설 앞뒤 제주산 겨울채소 가격 호조세

양배추·브로콜리, 생산·출하량 줄며 가격 급등 제주농협, 설 명절 대비 성수품 공급 점점 나서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든 양배추, 브로콜리 등 제주산 겨울채소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전년도 가격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늘었던 양배추는 면적 대비 생육부진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농협은 지난해 8-9월 정식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과 이상 고온현상으로 노균병 등 병해피해가 확산되면서 양배추의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배추의 1월 평균 가격동향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1만3440원(8kg)에 거래되고 있다.

브로콜리도 출하량 감소에 따른 시장반입물량이 줄어 전년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브로콜리의 1월 평균 가격동향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만9141원(8kg)으로 거래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배면적 감소와 정식기 잦은 호우로 인한 씩음병 등의 피해 확산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당근의 경우 단수가 줄어들면서 산지 수확물량이 평년대비 감소했는데, 산지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설 이후인 2월 이후 물량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우일 농협 제주본부장은 최근 양배추, 브로콜리

포전을 찾아 농작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애월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성수품 공급현황을 점검했다. 고 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수급불안에 공급이 우려되는 과일 등 주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집중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고 본부장은 “겨울채소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생산 및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설 명절 대비 출하조절 등을 통한 농산물 가격 지지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거래처 확보로 하나로마트 판매 증대를 꾀하는 등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설명절을 앞둔 브로콜리 등 제주산 겨울채소 가격이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라일보 DB

“중기 지원 통합정보 관리 고도화 필요”

제주연구원, 도내 중소기업발전방안 제언

제주에서 유망한 중소기업 분야로 식품, 화장품, 에너지가 선정됐다. 또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 통합 정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지역 유망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주연구원은 도내 제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분야를 선정했다. 제조업 유망 중소기업 분야로는 식품, 화장품, 에너지를 선정했다. 민선 8기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우주산업도 추가했다.

연구결과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5대 지원사업은 ▷기술개발자금지원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근로자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유망 중소기업 및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통합정보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고, 기업체 기본정보, 지원사업 성과, 기업 평가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업지원 정보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강다혜기자

체험용 섬식정류장, 문화예술 공간으로...

도, 내일부터 3월말까지 수채화 작품 25점 전시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간선급행버스체계(BRT)체험용 섬식정류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험용 섬식정류장에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예술인협회 들꽃수채화회의 수채화 작품 25점을 전시한다고 8일 밝혔다.

9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개장한 섬식정류장은 제주도 CCTV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시스템, 냉난방시설도 완비했다.

도는 오는 4월까지 서광로에 섬식정류장 6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섬식정류장 개통 후 미술품 전시 공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200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6281건에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나잡어업,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귀포시 동 지역은 1종 4만5000원-5

종 7500원, 읍·면 지역은 1종 2만 7000원-5종 4500원이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월 31일까지다.

문의는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올해 해양·수산분야 1891억 투입

제주~칭다오 직항로 개설·항만 공사·수산물 가공산업 등 주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와 중국 산둥성 칭다오 간 신규 직항로 개설 등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1891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바다 가치창출, 해양경제 도약’을 목표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년 대비 48.9% 늘어난 1891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각 분야별로 보면 수산업 776억원, 해양산업 209억원, 해녀문화유산 53억원, 해운항만 816억원

등이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항과 칭다오항 항로 개설 사업에는 예산 67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 주식유한공사와 협의해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과 화물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이 기존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해수부에 항로 개설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67억원, 화순항 건설사업 88억원, 서귀포항 공사 42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확보·소비 활성화 사업에 38억원, 수출시장 개척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11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밖에 수산물안전기금 37억원, 수산물 축적 지원 10억원,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 4억원,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28억원 등도 반영했다.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급변하는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며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조기 발주와 신속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갈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종자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